

주택가 잦은 공사 주민들 뿔났다

북구 두암동·문화동 일대 주택보수·하수도관로 사업 교통정체·분진·소음 '삼중고' 시달려...대책마련 호소

비가 오면 물이 차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알려진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주민들이 이번엔 잦은 공사 때문 교통 정체와 소음·분진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가뜩이나 도로가 좁은 주택가에서 시도 때도 없이 공사가 벌어지고 있으나 사전 예고나 관련 대책은 미흡하다는 불만이다.

6일 북구 두암동 주민과 해당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에 하수도관로사업과 함께 다가구 주택 건설과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보수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문화동 시외버스 정류장 뒤편 먹자골목과 인근 병원 일대는 평소 교통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 현상까지 발생하고 주차문제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 도로를 거쳐 출근을 하고 있는 운모(45·북구 문흥동)씨는 "같이 좁고 주차된 차량도 많아 평소에도 막히는 구간인데 대형 공사차량이라도 들어와 도로를 가로막고 있으면 수십분씩 기다리기 일쑤다"고 불평했다.

그는 공사기간 중 어지러운 도로 상황 속에서 불이 나거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나 응급차량이 진입

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공사 후 불안정한 도로 복구가 인한 민원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도로 곳곳 움푹 파인 흠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차량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 또 공사 후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구멍이 도로 가장자리에 그대로 방치돼 위험하다.

주민 이모(52·북구 두암1동)씨는 "계속되는 공사로 도로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통행이 어렵고 주차 문제로 주민간 언쟁도 높아져 아수라장

이 되고 있다"며 "공사에 앞서 철저한 교통 소통계획과 안전대책을 세우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센터 한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기간마저 길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잦다"며 "도로 흠 제거 등 작은 보수는 그때 그때 처리하고 있지만 교통을 통제하고 도로를 개보수하는 등 큰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 구간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12월까지의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굴착 공사 후 도로 복구를 보다 철저히 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5·18 기록물 '그때 그자리'...
올들어 네번째 온라인 전시

5·18기념재단은 올해 네번째 5·18 기록물 온라인 전시 '그때 그자리 그 사람들'을 이달 30일까지 재단 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한다고 6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는 보존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1997년 10월 사적지 보존 지역 24곳이 확정됐고, 1999년 각 자리별 표시석이 설치됐다.

이후 남동성당과 505보안부대 옛터가 각각 사적지 25호, 26호로 추가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시가 지정한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1호(전남대학교 정문)부터 사적지 26호(505보안부대 옛터)까지 1980년 당시 모습, 표시석이 설치됐던 1999년 모습, 그리고 2012년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9분 / 해질 18시 51분 / 달돋이 22시 35분 / 달짐 12시 14분

밤부터 비

차차 흐려져 남해안에 비가 오겠다.

구분	기온	강수량
광주	16/29°C	흐림
목포	18/27°C	흐림
여수	21/27°C	흐리고안개
나주	16/30°C	흐림
완도	18/28°C	흐리고안개
구례	16/29°C	흐림
강진	17/28°C	흐리고안개
남양	17/28°C	흐리고안개
장흥	17/28°C	흐리고안개
순천	16/28°C	흐림
영광	16/29°C	흐림
진도	18/26°C	흐리고안개
전주	16/29°C	흐림
군산	51/28°C	흐림
남원	14/29°C	흐림
홍산도	19/25°C	흐리고안개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구분	종양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경고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경고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1.5m	경고	높음	높음

◇주간날씨

날짜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날씨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최저/최고	21/27	21/27	22/28	21/28	21/28	20/27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접태풍 피해 신속 복구 남구청

군·경찰·자원봉사자 1만4000여명 동원 쓰러진 비닐하우스·주택 복구율 70%나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16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광주 남구가 뒤늦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6일 현재 전체 피해 복구율이 70%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구는 최영호 구청장을 중심으로 지난 11일간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응급복구 작업을 펼쳐왔다.

복구작업에는 군부대와 경찰 9751명, 공무원 1618명, 자원봉사자 2857명 등 모두 1만4300여 명이 참여했다.

모두 2530동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면서 남구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대촌지역은 이날 현재 약 51%인 1210동이 복구됐다.

바람에 휩쓸려 뒤흔던 1182주의 가로수도 막바지 복구작업을 진행중이며, 파손된 주택과 간판도 80% 수준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 군부대와 경찰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31사단 503여단은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700~1000명씩의 군 병력을 지원했다. 경찰과 사회단체, 기업도 큰 힘이 됐다.

특히 최 청장은 지난 28일 새벽부터 매일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작업에 힘을 보탰다.

최 청장은 지난 31일에는 대촌을 방문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피해상황을 보고하고 특별재난 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최 청장은 "전 직원과 복구 작업에 도움을 준 여러 기관·단체의 도움이 컸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복구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학교 성범죄 예방교육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한 학교 배움터 지킴이 및 민간 경비원 연수가 6일 광주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광주지방경찰청 황경화(왼쪽) 팀장의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고교생 20% '취업 희망'

전남지역 고교생 10명 중 7명은 대학진학을 원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남도교육청 산하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진로와 진학에 관한 초·중·고교생 실태 파악'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내 고교 1·2학년 학생 2489명 가운데 68.1%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질문에 '대학 진학'이라고 답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9%에 불

과했으며 아직 정하지 못한 학생은 12.9%였다. 일반계(특목고·자용고 포함) 고교생은 83.8%가 대학 진학을 원했고 특성화 고교생은 53%가 취업을, 25.5%가 대학 진학을 원했다.

특성화 고교생의 경우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관내 고교 1·2학년 학생 2489명 가운데 68.1%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질문에 '대학 진학'이라고 답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9%에 불

초중고생 2489명 설문 대부분 대학 진학 원해

한 기준으로는 '갖고 싶은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대학의 기능을 연구와 학문탐구보다는 취업양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가고 싶은 대학은 수도권의 4년제 국·공립대학 인문·사회계열을 가장 선호했으나 특성화고 학생들은 2·3년제 대학을, 광주·전남 소재 대학을 더 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 강력범죄 강력 대처

경찰·보호관찰관 1250명 증원

정부가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관을 1250명 늘린다. 늘어나는 인력의 규모는 내년 한 해 일반 공무원 증원 규모 1223명을 웃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공공형 사수사부가 신설돼 10여명의 사이버안전수사 전문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행안부전부는 6일 강력범죄 대처를 위해 경찰 1000명과 보호관찰관

250명을 늘리는 내용의 인력증원안을 기획재정부에 보내 관련 예산안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관이 250명 늘어나면, 현재 102명에 불과한 전자발찌 위치추적 관계센터 요원과 현장 보호관찰관 등 법무부 인력이 2배 넘게 보강된다. 이에 따라 1000여명이 가까운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관리가 한결 강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묻지마'식 불심검문 금지 각 지방청·경찰서에 지침

경찰이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종의 '묻지마'식 불심검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냈다.

경찰은 시민이 불심검문에 불응하거나 소지품 검사나 임의동행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실적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불심검문 실적도 따로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런 내용 등을 담은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을 전국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6일 보냈다.

경찰은 우선 심야시간대에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 등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불심검문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문 대상도 흉기 소지 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특히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집중적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불심검문에 앞서 관찰 및 대화 단계를 사전에 진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 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특수가발 발매!!!**

50만원~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간송Set, 다담Set, 우전갈로, 감사Set

광주 차생원 : 0622224-2902, 광주 신세계점 : 0622960-1232, 광주 롯데점 : 0622221-1037, 광주 현대점 : 0622150-7040
 목포 차생원 : 0611281-1002, 서울 차생원 : 02730-2983, 부산 차생원 : 0511256-7007-8, 광주광역시 동구 소래동 763-1 T.222-2302,3973